

1 본회소식

ART ON THE LINE

2020.10.20 - 11.2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온라인 동문전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Alumni Association

온라인동문전 개최

본회(회장 권영걸)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온라인 동문전 'ART ON-THE-LINE 2020'을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동문전은 약400명의 회원이 참가하며 작가별로 3점의 작품 및 약력이 소개된다. 온라인동문전은 모바일 및 PC를 통해 해당사이트에 접속해 볼 수 있다. 접속어는 오는 10월 20일 온라인전 오픈당일 본회 밴드 및 페이스북 등 SNS계정과 메일, 문자를 통해 알린다. 또 온라인전 종료 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작고동문들부터 순차적으로 보완해 전 동문들을 대상으로 한 아카이브작업을 지속하고 작품집은 11월 중에 발간예정이다.

SAP 지정기부금단체 승인

본회산하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SAP/ 이사장 권영걸)이 지난 9월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SAP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SAP은 기부금에 대한 손비(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지정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총동창회캘린더 수록작가 선정

본회는 지난 9월 23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이희범)로 부터 2021년도 총동창회캘린더에 수록될 작품에 대한 선정을 요청 받았다. 이에 본회는 권회장을 비롯해 모교학장, 서울대미술관장, 갤러리스트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0월초 작가를 추천하기로 했다. 수록되는 작품은 표지 포함 총 13점이며 선정된 작가에게는 소정의 이미지사용료가 지급된다. 이번 제작되는 캘린더는 탁상용으로 서울대동문들에게 11월말 배포될 예정이다.



모교에 추석맞이 선물

본회는 지난 9월 29일 한가위를 맞아 모교 경비실 및 미화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정성을 담은 작은 선물을 준비해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회장동정



9월16일 칸라이언즈포럼 기조연설

권영걸(69응미) 회장은 9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가브리엘스튜디오에서 뉴데일리경제와 칸 라이언즈 한국사무국이 주최한 '칸라이언즈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FORUM 2020 X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에서 '지속가능한 문명의 열쇠: 디자인'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했다. 연설은 유튜브(칸 라이언즈 코리아 채널)에서 중계됐다.

9월18일 '지구와 에너지' 가을호에 기고

권영걸 회장은 9월18일 '지구와 에너지' 가을호에 기고문을 통해 디자인은 탁상의 미학이 아니라, 삶을 혁신하고 세상을 개조하는 수단 이요 방법이라며 에너지 절약형 마을, "참마을Charm Village"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9월25일 Gallery VERITAS를 개관

권영걸 본회 회장은 9월 25일 서울예술고등학교 본관 3층에 Gallery VERITAS를 개관했다. 개관전에는 동양화와 강남미,조해리,최가영,함미혜 동문, 서양화와 김덕년,박현호,이은경,이주연,황인선,황정미 동문, 조소과 권창남,장준혁,전향섭 동문 등이 대거 참여했다.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발행일: 2020년 9월 30일 ●발행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발행인: 권영걸 ●편집인: 이순영 ●편집장: 한현정 ●편집: 장주연 최현주

모교소식

해외 3대학과 MOU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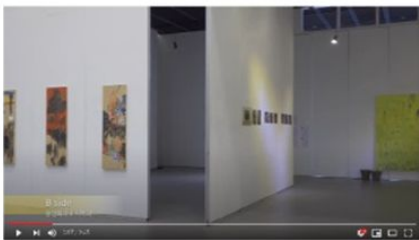
모교(학장 문주)는 러시아 톰스크주립대학교, 타이완 국립타이완과학기술대학교, 호주 스윈번공과대학교와 국제협력을 체결했다. 러시아 톰스크에 위치한 톰스크주립대학교(사진 왼쪽)는 1878년 러시아 최초로 설립되어 깊은 역사를 가진 대학교이며 타이완 타이베이에 위치한 국립타이완과학기술대학교(사진 중앙)는 대만의 첫 기술학교로 실무 위주 기술 중심 교육을 기반으로 설립된 국립대학이다.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스윈번대(사진 오른쪽)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공립대학교로, 디자인대학의 세부전공으로는 커뮤니케이션&그래픽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건축, 건축공학, 산업&제품디자인, 인테리어건축디자인 등이 있다. 모교는 이번 MOU를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문화적, 전문적 교류가 시행될 것 기대하고 있다.

굿즈 클라우드펀딩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학기 전시가 무산되었기에 모교는 9월 10~19일 비대면으로도 재학생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굿즈 클라우드펀딩을 진행했다. 후원자가 제작 예정인 굿즈 중 갖고싶은 프로젝트를 택한 후 후원금액을 입금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모교 학생회 '패키지'와 '2020 디자인과 학생회'가 공동진행하고 재학생들이 제작자로 참여했다. 구글폼으로 관심있는 후원자가 펀딩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스티커, 키링, 버튼, 자석버튼, 그림톡, 엽서, 포스터, 에코백, 파우치 등 총 110여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예술주간



지난 9월 21~25일지 '2020 서울대학교 예술주간'이 열렸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전시회와 시낭송회, 연주회, 무용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었다. 예술주간에 진행된 전시는 총 18개였으며 미술대학 동문작가 약 40여명이 참여해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 곳곳에 작품을 설치했고, 인문대학 정보언론학과 동아리 '이미지밴드'가 오프라인 전시와 인터뷰를 영상에 담았다. 23일 오전11시 'SNU_ARTSPACE : 서울대 예술주간' 유튜브에 온라인 전시 'B Side'가 전시 중 가장 먼저 공개되었다. 'B Side'는 회화, 설치, 텍스트를 아우르는 온라인 전시로 동양화과와 미학과가 지난 1년간 진행해온 세미나의 결과보고전이였다. 김나리(석사07미학)가 큐레이팅 한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들의 기존 스타일인 A Side 작품들과 새로운 도전 B Side 작품들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3인의 미술이론가들도 B Side적인 글들을 생산했다. 또한 개막공연 'n개의 세계'에서는 김태훈(석20소), 김종록(18국악), 임현진(16중어중문) 동문이 공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영상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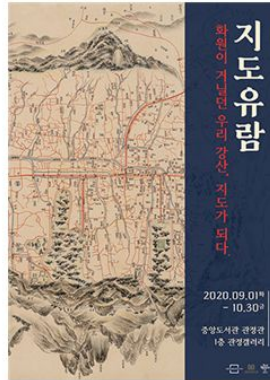
서울대학술연구교육상 수상



모교 동양화과 신하순(83동양) 교수가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을 수상했다.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지난 9월 28일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인 강의로 대학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교수 1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시상식은 29일(화) 오전 11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개최되었고 유튜브 서울대 공식 홍보 채널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신하순 교수는 '꿈키아트스쿨'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미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2008년부터 국제 교류전시 '삼국G'를 통해 학생들의 국제적 교류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평면조형 영상수업을 개발하고 작품연구·수목화를 담당하여 전통의 국제적 확장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활발하게 해나가고 있으며 저서 '우리그림, 그러볼까요?' 출간으로 기초 동양화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미술품보존센터 '지도유람'전

궁중 화원이 만든 산수화같은 지도들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미술품보존연구센터(센터장 조인호)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악캠퍼스 관정관 1층 관정갤러리에서 '지도유람: 화원이 거닐던 우리 강산, 지도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조선 후기 정치·경제·군사적 상황을 회화적 기법으로 담은 다양한 지도를 통해 당시의 세계관과 선조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조선시대 지도는 궁중 화원이 현장을 답사하며 제작했기 때문에 기능적 실용성뿐 아니라 실경산수화에 준하는 미적 완성도를 자랑한다. 전시 지도 중 '1872년 군현지도'는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국가 지도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국 군현지도집이다. 당시 지방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 '도성도'는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구성된 조선의 수도 한양의 지형적 아름다움을 한눈에 보여준다.

미술품의 보존 연구와 후진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술품보존연구센터는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와 함께 모사본을 제작하는 등 교육과 연구, 양 측면에서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택트플래너 발송

모교는 비대면 수업과 개인일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학부 및 석박사과정 재학생 모두에게 연택트플래너를 발송했다. 지난 학기 연구노트와 같이 학생들이 연택트시기에 체계적으로 학업을 해나가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학생회와 함께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동문기업을 통해 구현된 의미있는 결과물이다. 연택트플래너는 동문기업 '모트모트'(대표 김권봉, 07디자인)를 통해 제작했다.

서울대소식

첫 온라인졸업식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 개교 이래 최초로 온라인 졸업식이 열렸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기 학위 수여식을 취소해야 했던 서울대는 지난 8월 28일 모교 유튜브채널에서 제74회 후기 온라인 학위수여식을 열고 졸업생들에게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온라인졸업식은 모교 합창단과 OB합창단이 성부를 나눠 각자 녹음해 편집한 노래와 졸업생들이 제공한 모교의 추억사진으로 시작했다. 이어 오세정 총장의 식사와 이희범 서울대 총동창회장의 축하, 졸업생 대표인사, 음대 중창단의 축하 등을 약 30분간 방송했다. 박사 690명, 석사 1,031명, 학사 921명 등 총 2,642명이 학위를

받았고 오총장은 직접 축하하지 못해 섭섭하고 미안하다며 졸업생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독였다. 이어 이희범 회장은 자연과 공생하는 삶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과거의 학습에 만족하지 말고 시대정신을 헤아려 새롭게 삶에 적용하라 주문했다. '유튜브에서 학교를 보니 새롭다', '정말 오랜만에 학교 졸업식을 본다' 등 졸업을 축하한다는 선배들의 메시지도 눈에 띄었다. 이날 1,000여명이 실시간으로 졸업식을 시청했다.

등록금 일부반환 결정- 코로나19 장학금 형식

서울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지난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 일부를 '코로나19 특별 장학금' 형태로 반환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들과 5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총 3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편성해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9월 16일 밝혔다. 긴급학업장려금 총액은 20억원 규모로, 1학기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실 납입액에 비례해 지급한다. 평균적으로 납입액의 10% 선에서 지급하되, 실가·실습 수업이 많은 음대·미대 학생들에게는 지급 비율을 높이기도 했다.

서울대총동창회소식

2학기장학금 535명에 14억원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이희범)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535명에게 2020 학년도 2학기 장학금 14억여원을 지급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학기에 이어 장학금 수여식은 생략했다. 이로써 총동창회는 올해 장학생 1,280명에게 3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1980년 장학사업을 시작한 이래 여러 동문의 지원에 힘입어 누적 장학생 1만4,000여명, 누계 장학금 351억원까지 규모를 늘려왔다. 2020년 8월 말 현재 설립된 148개 특·기금장학회 중 미대 동창회를 포함한 105곳에서 이번 학기 장학금을 수여했다. 가장 많은 장학생에게 지급한 곳은 임광수(48기계공학) 고문이 설립한 임광특지장학회로 64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 총 1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월 30만원씩 6개월간 쓸 수 있는 생활비를 주는 관악회 결연 장학금은 128명이 받았다.

온라인 우수인재채용박람회

총동창회는 지난 9월 1~4일 서울대 경력개발센터와 공동주관으로 '2020 Dream On 서울대학교 온라인 우수인재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했다. 모교 학생이 채용박람회사이트에 들어와 관심 기업에 상담신청을 하면 줌(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구인·구직자 간 직무채용 관련 상담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방식인 만큼 기존의 국내 대기업과 공기업 외에 해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동참해 참여 기업의 성격이 다양해졌다. 또한 채용상담을 사전예약한 학생들에게 선착순으로 햄버거기프트콘을, 기업의 채용상담 요청에 응답한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기프트콘을 선물했다.

동문등산대회

- 일시: 2020년 10월 24일(토) 오전 10시 ~
- 집합장소: 서울대 정문 옆 관악산 입구 광장
- 코스: 관악산입구-호수공원-제4야영지-무너미고개-수목원-안양유원지
- 개인준비물: 마스크, 모자, 선글라스 및 물 등
- 참가비: 2만원 (중식·기념품제공)-참가자가 많으면 선착순으로 제한

10월 수요특강

- 일시: 2020년 10월 28일(수) 오전 7시 30분
- 장소: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마포 도화동 공덕역 5호선 8번출구)
- 강사: 양돈선(행대원76,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운다' 저자)
- 참가비: 무료(김밥 등 간단한 식사 제공)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시 선착순 50명으로 제한하며, 유튜브채널로 생중계

제41회 홈커밍데이기념 동문화합한마당 온라인개최

- 일시: 2020년 11월 2일(월)-상영시간 추후공지
- 방송채널: 총동창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 행사: 현황보고, 동문축하메시지, 재능기부영상, 축하공연, 행운권추첨 등
- 동문 촬영영상 공모-채택시 기념품제공
- ▶ 입학 또는 졸업 20·30·40·50·60주년 맞은 소감-1분 내외 영상
- ▶ 모교 또는 총동창회에 대한 제언 등-1분 내외 영상
- ▶ 자랑하고 싶은 본인의 재능(노래·악기연주·시낭송 등)-3분 내외 영상
- 응모: 10월 16일(금)까지 촬영영상 제출(webmaster@snu.or.kr)
- 이름·단과대학·입학연도·휴대전화번호 표기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하고 관악극예술회(회장 윤원석)가 기획·제작한 '동굴가죽(The Cave Dwellers)' 연극이 오는 10월 15~31일 서울 대학로 예그린씨어터에서 공연된다. 동굴가죽은 1940년 지나친 상업성을 비판하며 풀리처상 수상을 거부해 더욱 높은 명성을 얻은 윌리엄 사로얀의 희곡으로, 같은 해 연극평론가협회상을 받았다. 1957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됐고, 1960년 서울대총연극회가 '혈거부족'이란 제목으로 국내 첫선을 보인 후 많은 대학 연극회와 연극학과에서 교재처럼 공연된 명

작 희곡이다. 재개발사업으로 철거가 임박한 뉴욕의 낡은 극장에 사는 노숙자들이 동굴 같은 환경에서도 품위와 유머를 잃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가족처럼 지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이다. 이순재(54철학), 심양홍(64국문) 동문이 주인공인 왕년의 명배우 '왕' 역할로 열연하며 나호숙(70가정관리), 박재민(02체육교육), 지주연(03언론정보), 김인수(74건축), 정인범(76금속) 등 관악극회의 대표연기자들이 총출연해 코로나에 지친 관객들에게 따뜻함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최장공연으로 유명한 '빈 방 있습니까?'의 작가와 연출로, 대학로에서도 오래 활약해온 최종률(66회화) 동문이 연출을 맡아 기대를 모은다. 한편 관악극회는 4만원짜리 입장권을 2만5,000원에 제공하는 '동문 특별 할인제'를 시행하고, 단과대학 및 특별과정의 문화행사 및 단체관람에 전관 대관, 배우와의 만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 관악극회 010-8523-1813)

4 공지사항

작품기증



설화영(74응미)

설화영 동문이 동문들을 위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본인의 작품 1점을 본회에 기증했다.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설동문은 현재 우리가까이회, 갑인동인전, 서각협회, 회원으로 뉴욕 Hyun Contemporary LLC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 등 서양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수필가로 등단해 수필집 발간을 준비 중이다.

회비납부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감사·부회장 30만원
찬조금		이사 10만원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찬조금(2020.9.1-30)

●설화영 작품 기부

●유병수(58회화)50,000원

회비납부자(2020.9.1-30)-가나다순

■ 평생회비 ●홍광현(86산미)

■ 연 회 비

부회장 ●김혜림(81회화)

이 사 ●권동현(90조소)

회 원 ●김덕겸(58응미) ●문종옥(60회화) ●양호일(58응미)

●오용길(58응미) ●이영룡(58회화) ●이재한(58회화)

●이정수(58회화) ●이춘만(58조소) ●전영화(49회화)

●정종해(67회화) ●홍정희(65회화)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매달 25일 이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 전화 02-872-8065 메일 snuarta@naver.com

동문사업체 소개

본회는 홈페이지(제작중)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하여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의 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 02-872-8065

입금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동창회 SNS 가입안내

네이버 밴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https://band.us/band/76254576>

인스타그램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www.instagram.com/snuartassociation

페이스북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www.facebook.com/groups/500249366673119/

네이버 카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cafe.naver.com/snuartassociation

후아유미술학원

대표/ 이상원(88서양)



후아유 미술학원은 예중, 예고, 미대입시, 편입, 임용, 취미미술을 지도하는 곳으로, 입시지도 경력 25년의 현 덕원예고 실기강사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 한예중 특별반과 이화여대, 고려대, 국민대 진학반 등이 있으며 이대 수시를 100여명 합격시킨 원장이 직접 강의한다. 또한, 미술 특성학교의 방과후 수업과 동아리, 영재수업 등을 했으며 열과 성을 다한 차별화된 수업으로 전원합격의 결과를 냈다.

blog.naver.com/whoau-art

서울 양천구 목동로 11길 7, 아르떼빌딩 2층 T. 02-6032-0034, 010-8250-0034

미술학원 영렘브란트 위례신도시센터

대표/ 김윤희(06디자인)



학생들의 수준과 니즈를 고려한 1:1 맞춤수업을 진행하는 미술학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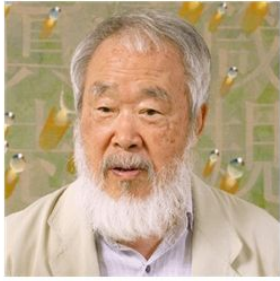
진정한 미술교육이 무엇인지 언제나 고민하는 자세로 소묘와 수채화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사람,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드로잉 실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 게임이나 만화 드로잉을 위한 인체를 잘 그리고 싶은 사람, 해외 학교를 위한 미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은 사람, 미술대회 경연을 쌓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한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수업가능

blog.naver.com/yr_wirye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22 아이플렉스 407호 T. 031-721-5006

구립미술관 건립추진

김창열(48회화) 동문



평창동에 자리한 '물방울 화가' 김창열 동문을 시작으로 서울 평창동, 부암동, 구기동, 홍지동, 신영동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지향해 온 예술동네 만들기를 시작했다. 지난 23일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김창열 화백의 아들 김시몽 고려대 불문과 교수 부부등이 모여 종로구(구청장 김영종)와 '구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구립미술관 건립을 차제로 추진하고, 작품 100점 이상을 (종로구에) 무상으로 기증하며, 이들의 자택을 활용한 구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었다. 협약대로 일이 잘 이뤄진다면 한 동네에 김창열미술관, 이항성미술관, 김용원미술관(가칭)이 이웃하게 된다. 종로구는 이들 자택을 보상매입하고, 100점 이상의 작품과 소장품을 기증받는 것이다. 이순중(전 서울대미대 학장) 자문박문화포럼 이사장은 문화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예술벨리가 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카이브전시 개최

나희균(50회화)·안상철(작고.50회화) 동문



기록하고 기억하다. 안상철, 나희균 아카이브전시가 10월25일까지 안상철미술관에서는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안상철, 나희균 동문 연보와 함께 드로잉, 사진, 전시 포스터, 기사 등을 통해 개인을 추억하고 그들이 살다간, 또는 살고있는 한국미술 역사의 한 부분을 기억하고자 한다. 각각 한국화와 서양화를 전공한 두 사람은 1950년 서울대 회화과에 동기 입학해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안상철 동문은 55년부터 59년까지 5년 연속 국전에 입상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최연소 국전 초대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나희균 동문은 54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김환기, 이응로 등과 교류하며 해방 후 본격적인 유화의 시대를 열었다. 서양화의 개척자 고희동의 주례로 59년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창작활동과 제자들을 양성에 힘썼다. 장흥 기산저수지를 앞마당 연못처럼 품고 있는 안상철 미술관은 아들이 건축가 안우성이 설계·시공한 아름다운 미술관 건물로 풍경의 아름다움을 더한 공간이다.

실험정신 빛난 조각가의 작품세계

최충웅(57조소/작고) 동문



최충웅(1939-2019) 동문 1주기를 기리는 전시 '연우(然偶) 최충웅, 우리 눈으로 조각하다'가 김종영 미술관에서 지난 9월 29일까지 개최됐다. 최동문은 초등학교 때 동족상잔의 트라우마를 겪고, 전후복구가 한창이던 1957년 모교 조소과에 입학해 재학 중 4·19혁명에 앞장섰다. 이후 격랑의 시대를 살며 황무지인 한국미술을 개척했다. 김종영 미술관의 최종태(64조소) 명예관장은 시대적 책임감이 평생 그의 작품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며, "더 높은 세계에 대한 갈증,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해 마지않는 이상의 세계, 그런 꿈이 형태 안에 있다"고 했다. 스티로폼을 이용한 작품 등 실험정신이 빛나면서도 민족성을 추구했던 그의 정신이 곳곳에 담겨 있는 45점이 소개됐다. 생전 최동문이 "사실 나 스스로 작품에 대한 만족은 충분하지가 않아. 단 하나 자신 있는 것은 거짓 없는 작품을 했다는 거야"라고 말했듯 곳곳이 자신만의 작업에 몰두하며 진실 된 작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연으로 채우는 삶과 예술

김지희(59응미) 동문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김지희(자연염색박물관장) 동문은 어릴적 어머니가 명주 길쌈을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연염색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모교에서 응용미술학을 전공한 뒤 일본 동경대 대학원 연구원으로 염직과정을 수료했다. 일제식민지와 한국전쟁 등 험난한 세월속에 토속적인 문화 즉 길쌈문화와 자연염색의 사라지면서 쪽씨조차 말라버려 존재를 찾기가 어려운 점을 생각하고 김동문은 자연염색만이라도 되찾고자 귀국할 때 일본에 건너갔던 쪽씨 다섯 알을 가지고 왔다. 이후 본격적으로 염료의 세계에 발을 들였으며 대구 가톨릭대학교 공예과 교수로 재직하며 자연염료 연구에 매진했다. 2005년 퇴임 후 사재를 털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염색박물관을 설립해 자연염색의 매력을 알렸다. 김 동문은 자연염색이 활성화 되려면 원활한 소통과 네트워크 형성으로 통해 학자들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굴가족 초연무대

최종률(66회화) 동문



최종률 동문이 연출하는 연극 '동굴가족(The Cave Dwellers)'이 오는 10월 15일 대학로 예그린 씨어터에서 개막된다. 배우이자 작가 겸 연출가인 최동문은 연극계의 멘토로 '금관의 예수', '낮은 데로 임하소서', '사랑의 전화', '루터' 등 다수 작품을 쓰거나 연출한 한동대 겸임교수이다. '빈방있습니까?'라는 대표작품이 있다. 연극뿐 아니라 개성있는 연기자로서 영화 '살인의 추억', '타짜',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등에 출연했다. 연극 '동굴가족'은 1939년 미국의 위대한 극작가 중 한 사람으로 추대된 바 있는 작가 윌리엄 셔로연(1908~1981)의 작품으로 1957년 뉴욕 브로드웨이의 비주극장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꾸준히 상연되고 있다. 서울대동문극단 관악극예술회가 최동문의 연출로, 동굴가족을, 한국 초연 무대로 올린다.

아시아인 최초 나폴리시립미술관서 개인전 개최

이정연(71회화) 동문



한국적인 소재로 독특한 조형 세계를 구축한 이정연 동문이 오는 10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아시아 작가로서는 최초로 이탈리아 나폴리시립미술관(Palazzo delle Arti Napoli)에서 개인전을 한다. '신창세기(Rinascita)'라고 명명된 이번 전시에는 '만남 시리즈(1996~99년 작)'와 '신창세기' 시리즈(2000~20년 작) 등 70여점의 회화 작품이 선을 보인다. 이동문은 삼베, 한자·옷·흙·숫자·자개 등 전통재료를 독창적 조형기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동양적 아름다움을 구현해 국내외 강단에서 호평을 받았다. 2014년 한국인 최초로 일본 도쿄의 모리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했고 이탈리아 팔라초탈리아페로미술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대에 있는 슈타인버그미술관 등에서도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이 동문의 개인전이 열리는 나폴리시립미술관은 2005년 개관한 나폴리 현대미술의 거점이다. '얼굴 없는 작가'로 잘 알려진 영국 출신의 벽화 예술가 뱅크시와 앤디 워홀, 살바도르 달리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이곳에서 전시회를 했다.

제주 화가 화단 45년 첫 산문집 출간

강요배(75회화) 동문



제주화가 강요배 동문이 첫 산문집 '풍경의 깊이'를 출간 했다. '풍경의 깊이'는 강동문의 인생 45년간의 생각들이 담겨 있으며 그의 삶의 여정을 오롯이 보여준다. 그는 1992년 한국 사회가 세계화를 이야기하며 너도나도 해외로 진출할 때 자신에게 가장 편하고 자유로운 고향 제주로 돌아갔다. 자신이 있는 곳이 중심이 되어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진실되게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동문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예술과 삶 모두 정직하게 천천히 가야한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며 자신이 나아갈 지점에 대해 고민하며, 더욱 자유분방하고 부드러우며 리듬이 담긴, 형태에서 자유로운 작품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조각적 조각'으로 조각의 본질을 묻다

정광호(79조소) 동문



정광호(공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동문의 작품은 그림과 조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로, 조각의 본질을 묻는 작업이다. 그는 "조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조각적 상황으로 인해 조각되는 것이다"면서 "나의 오브제들을 통해 비-조각적 상황과 관계를 맺거나 비-조각의 세계로 진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정광호의 작품들은 조각이 가진 물리적 무게감을 떨어버리고, 한없이 가벼운 조각으로 변화시켜 회화의 환영과 재료의 물성을 공존시킨 것이 특징이다. 그 어떤 장르에도 다 속하지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으로 특유의 토탈아트(Total Art) 개념의 작품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정광호는 Koreanische Gegenwartige Kunst seit 1980, 한국현대미술해외전, 21C한·일미술교류전, 시카고아트페어, 한국현대미술100인: 1970-2007 등 국내외 유수의 그룹전 및 초대전에 참가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대구문화재단 멘토스쿨, 멘토링

최은주(83회화) 동문



최은주(대구미술관 관장) 동문이 (재)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 예술인지원센터가 지난 9월 16일 대구예술발전소에서 개최한 제3차 멘토스쿨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세계'에서 멘토의 역할을 수행했다. 최동문은 대구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코로나19로 달라진 예술생태, 다양한 실험, 대안활동 등을 논의했다. 이번 멘토스쿨은 코로나19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이다. 최동문은 서양화와 미술 이론, 미술교육을 공부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5년간 학예연구실장, 덕수궁미술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이 세계가 주목하는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미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대구지역 전업작가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영상 프로젝트 '나의 예술세계'라는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디자이너의 눈으로 본 우리 유물

최경원(86산디) 동문



최경원 동문이 우리 유물을 디자인 미학으로 들여다보는 새로운 관점의 책 '한류미학'을 출간 했다. 구석기시대 주먹도끼부터 백제 무령왕릉 금관, 고려 청자, 조선 분청사기에 이르기 까지 우리의 대표 유물을 디자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동서양의 역사, 문화, 철학까지 곁들여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훌륭한 산업디자이너들은 모두 자신의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해 내고 있었다. 최동문은 우리 역사와 유물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국내, 해외 박물관을 찾아 다녔다. 우리 유물에 매혹된 최동문은 확인 할수록 점점 우리 유물의 아름다움에 대해 확신했다. 아직도 일제 식민사관의 잔재가 우리 유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많이 가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는 최동문은 이번에 낸 책이 한류미학 시리즈 중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지만 앞으로 고려, 조선, 근대, 현대까지 계속 낼 계획이다.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심사위원 위촉

양혜규(90조소) 동문



설치미술가 양혜규 동문이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심사위원에 위촉됐다. 뉴커런츠는 아시아 신인 감독의 데뷔작이나 두번째 장편을 소개하는 경쟁 부문으로, 아시아영화의 미래를 이끌 감독을 발굴하는데 의의가 있다. 양동문과 인도출신의 거장 미라 네어 감독, 티에리 조방 스위스프리부르크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3인의 심사위원단은 총 2편을 선정하고, 선정작 감독은 각각 3만 달러의 상금을 받는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다. 한편 독일 프랑크푸르트 슈테델슐레 교수인 양동문은 서울과 베를린을 오가며 활동하는 세계적인 설치미술가로 제53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및 아르세날레 단체전, 제13회 카셀도쿠멘타, 제12회 샤르자비엔날레, 제16회 이스탄불비엔날레 등에 참여했으며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인전 'O2 & H2O'를 개최한다(사진).

청년마음건강 랜선박람회 총괄디렉팅

장재열(06디자인) 동문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말벗해 주는 비영리 NGO 단체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대표 장재열 동문이 '2020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랜선 박람회'의 총괄디렉팅을 맡아서 운영주체로 참여했다. 마음건강 랜선박람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번 박람회를 준비한 장동문은 "청년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비대면 축제"라며 "제목처럼 '당신을 위한 마음휴양지'가 되길 기대했다"고 전했다. 장동문은 사회기관단체인, 칼럼니스트, 청춘상담소 '좀놀아본언니들'의 대표로서 청년들의 마음건강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도모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청년 단체의 성장을 돕고 있다.

신간



풍경의 깊이

강요배(72회화) 동문 / 돌베개 발행

『풍경의 깊이』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강요배의 삶과 예술을 응축한 산문집이다. 강요배가 평생 그려 온 2,000여 점의 그림과, 그림에 담긴 뜻을 표현해 온 수많은 글과 말 가운데 독자에게 그 요체를 전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내어 실었다. 강요배는 그림 작업이 “평평한 곳에 몸을 써서 마음을 나타내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정연택(74응미) 동문 / 한문화사 발행

도자기 제작의 기본과정을 중심으로 재료와 기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책. 일반인이 도자기를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설명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또한 세부항목의 주제는 기초적이지만 상세한 기술을 통해 전문성을 가지며, 제작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정보, 주제별로 유용한 관련 정보를 첨부해 폭넓은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술관의 건립 · 운영과 21세기 미술관

박우찬(85서양) 동문 / 도서출판 (주)작품 오늘발행



오랫동안 미술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온 저자들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미술관을 건립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21세기 미술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고심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필요성을 느껴 이 책을 발간했다. 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을 졸업했으며, 경기도미술관장을 역임하였다.



한류미학

최경원(86산디) 동문 / 더블북 발행

‘한류 미학’은 우리의 유물을 디자인 미학으로 들여다보는 새로운 관점의 책이다. 저자가 직접 그린 디자인 이미지로 유물의 뛰어난 디테일을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계획중인 전체 5권 중의 제 1권인데 선사~통일신라시대 유물 30점이 구현한 품격 높은 아름다움을 증명한다.

전시



매체와 물방울

김창열(48회화) 동문

▶ 전시기간 : 2020. 9. 1 - 2021. 2. 28
▶ 전시장소 : 김창열미술관(064-710-4150)
▶ 관람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소장품기획전 ‘매체와 물방울’은 김화백의 작품 중 물방울에서 회귀로 넘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신문지를 바탕으로 그린 물방울을 주목하여 선보인다.



흙의 숨결 Breath of Earth

최만린(54조소) 동문

▶ 전시기간 : 2020. 8.20-11.28
▶ 전시장소 : 최만린미술관(02-6952-5016)
▶ 관람시간 : 오전10시~오후6시 매주 화~토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개관기념전 ‘흙의 숨결’은 추상조각의 대가 최만린의 대표작품들을 통해 작가가 평생 구하고자 했던 ‘생명에 대한 관심’과 ‘한국조각의 뿌리찾기’를 보여준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안상철(작고.50회화) 동문

▶ 전시기간 : 2020. 8. 25 - 11. 25
▶ 전시장소 : 안상철미술관(031-874-0734)
▶ 관람시간 : 평일 오전11시~오후5시

양주 안상철미술관은 2020 특별기획전 ‘모란이 피기까지는: 안상철의 채색 문인화’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1960~1980년대 사이에 제작된 안상철의 화훼화 작품 20여점이 전시된다.



황창배 1979년 이후그림

황창배(작고.66회화)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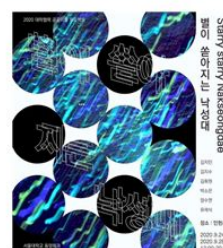
▶ 전시기간 : 2020.10. 6-11. 7
▶ 전시장소 : 황창배미술관 (02-332-1781)
▶ 관람시간 : 오전11시~오후6시/ 일.월 휴관
황창배미술관은 황창배작가 19주기를 맞아 작가가 1979~1983년 제작한 회화 17점과 전각 작품 10여점을 소개한다.

MMCA 현대차시리즈 2020 : 양혜규-O2&H2O



양혜규(90조소) 동문

▶ 전시기간 : 2020. 9.29-2021. 2.28
▶ 전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02-3701-9500)
▶ 관람시간 : 오전10시~오후6시(월,요일 휴관)
양혜규는 전시에서 ‘현실의 추상상’을 화두로 과학적 사실계와 지각계, 기후, 재난 등 점차 극단으로 치닫는 현상계를 총체적으로 사유하고자 질문을 던진다.



별이 쏟아지는 낙성대

김휘원(14동양)·김지민(14동양)·박소은(14동양)
양수연(07동양)·김지수(06동양)·유재식(13동양)·동문

▶ 전시기간 : 2020. 9.24-9.28
▶ 전시장소 : 인현시장
▶ 관람시간 : 오후12시~오후8시
‘2020서울은미술관’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낙성=떨어지는 별빛과 소원의 이미지를 인현전통시장 공간으로 확대한 모교 동양화와 동문 6인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

개인전

성명(가나다순)	전시명(개인전)	전시기간	전시장소
강호연(04조소)	Mercury Play Back	09. 15 ~ 09. 20	오시선
공기평(88서양)	춤추는 해바라기 Dancing Sunflowers	10. 06 ~ 10. 13	아트스페이스 이색
권대훈(90조소)	Still in the Forest	09. 11 ~ 10. 17	아뜰리에아키
김건일(92동양)	바람이 지나는 길	09. 05 ~ 10. 11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김다히(10동양)	침잠의 밤	09. 23 ~ 10. 06	갤러리도스
김대유(09서양)	집에 가자	10. 07 ~ 10. 18	갤러리 자작나무
김소정(12동양)	서울의 건기	10. 13 ~ 10. 18	사이아트 도큐먼트
김지아나(박사수료)	人(MAN):Contact	10. 06 ~ 10. 30	밤부갤러리
김지은(95서양)	택지개발자의 도시	09. 17 ~ 10. 30	레이블갤러리
김천일(71회화)	남도 견문록	09. 22 ~ 10. 18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제5, 6전시실
김혜미(06서양)	키 작은 나무들을 뒤덮은 파도모양의 모래더미들이	09. 10 ~ 09. 25	인스턴트루프
박소영(92동양)	산수를 노닐다 Strolling in Nature	09. 24 ~ 09. 30	아트스페이스 켈리아
손석기(석사16조소)	Under the Moment	09. 07 ~ 09. 30	광명시철산동9-159(고가도로밑 야외설치)
신경아(96서양)	자라고 열매맺다	08. 04 ~ 10. 31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신민경(석사15동양)	지나간 자리	09. 22 ~ 09. 27	사이아트 스페이스
신재은(04조소)	GAIA-part2: White	09. 17 ~ 09. 27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양깃(석사15동양)	구름과 자의식	10. 07 ~ 10. 13	갤러리이즈 제3전시장(3F)
유희송(11공예)	각자의 자리	09. 27 ~ 11. 28	익선동 한옥카페 루스카
이기영(84동양)	이기영 개인전	10. 08 ~ 11. 03	ANA갤러리
이병훈(92공예)	이병훈 금속공예전	09. 09 ~ 09. 15	갤러리 도스
이상순(60회화)	이 상 순 회고전	10. 21 ~ 10. 26	부산교육대학교 한새갤러리 제1,2전시실
이선용(박사17공예)	Silly Silicone	10. 16 ~ 10. 25	무목적
이수경(83회화)	오 장미여! Oh Rose!	09. 10 ~ 09. 27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이재준(06디자인)	이재준 개인전	09. 05 ~ 10. 03	Beaux Arts, Bath, UK 12-13 York Street
이정수(58회화)	이정수 초대전	10. 13 ~ 10. 25	세종갤러리
이정태(84서양)	FLUX	10. 07 ~ 11. 03	보헤미안갤러리
이종송(83동양)	양상불	09. 09 ~ 09. 27	한벽원미술관
장 진(92동양)	달이 비추다 Calm-Shine	09. 03 ~ 10. 12	대구신세계갤러리
전용일(75음미)	무언가	09. 15 ~ 10. 10	갤러리완물 2층 전시실
정직성(95서양)	기계 The Mechanic	10. 21 ~ 11. 01	고암이응노 생가기념관 기획전시실
조인호(96동양)	유고군산군도 遊古群山群島	09. 17 ~ 11. 27	한원미술관
최선길(80회화)	천년의 노래	10. 21 ~ 10. 27	갤러리 인사아트
최일준(08금공)	Wallow	09. 12 ~ 09. 29	Show and Tell
한경우(98조소)	Unimaginable columns	09. 21 ~ 21.1.29	스페이스K
함미애(81회화)	"그림에도 불구하고"	09. 15 ~ 09. 27	세종갤러리
홍성용(97동양)	웃칠화전	08. 25 ~ 09. 13	갤러리비스트로/복합예술공간 맨션나인

모트모트 스튜디오 플래너 대표/ 김권봉(07디자인)

모트모트는 자기 관리와 목표 달성을 돕는 도구를 만든다. 10분 단위로 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텐미닛 플래너', 해야 할 일을 일목요연하게 체크할 수 있는 '태스크 매니저'가 대표적이다. 2016년 론칭 이후 한 번도 주춤하지 않고 상승하는 매출을 기록한 종이 노트다. 모트모트는 사용자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 '로켓단', '모트트레인' 등으로 이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응원한다. 현재 모트모트는 모바일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며 온,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www.motemote.kr 서울시 중구 마른대로 146 T.070-8865-9057 bongkim@motemote.kr

